

이명박 정부 장관 내정자		
	이름	강인수
	경력	전 재경원차관
	나이	62
	출신지	경남 함천
	학력	경남고, 서울대
	이름	김도연
	경력	서울대 공과대학장
	나이	55
	출신지	서울
	학력	경기고, 서울대
	이름	유명환
	경력	주일대사
	나이	61
	출신지	서울
	학력	서울고, 서울대
	이름	김경한
	경력	전 법무차관
	나이	64
	출신지	경북 안동
	학력	경고, 서울대
	이름	이상호
	경력	전 합참의장
	나이	62
	출신지	강원 원주
	학력	경기고, 육사
	이름	원세훈
	경력	전 서울시부시장
	나이	57
	출신지	경북 영주
	학력	서울고, 서울대
	이름	유인춘
	경력	경원대 교수·배우
	나이	56
	출신지	서울
	학력	한양고, 중앙대
	이름	정은현
	경력	한농업 CEO연합회장
	나이	53
	출신지	전북 고창
	학력	남성고, 고려대
	이름	이명훈
	경력	전경련 상근부회장
	나이	60
	출신지	대전
	학력	대전고, 연세대
	이름	김성이
	경력	이화여대 교수
	나이	61
	출신지	평북 신의주
	학력	경기고, 서울대
	이름	박은경
	경력	YWCA 연합회장
	나이	61
	출신지	경기 수원
	학력	경기여고, 이화여대
	이름	이명환
	경력	인대대 교수
	나이	64
	출신지	경북 경산
	학력	경기고, 서울대
	이름	정은현
	경력	전 철도건설 이사장
	나이	59
	출신지	충남 청양
	학력	청양중고, 고려대
	이름	남주훈
	경력	경기도 교수
	나이	55
	출신지	전남 순천
	학력	덕수상고, 건국대
	이름	이명훈
	경력	한국자유연맹 부총재
	나이	62
	출신지	충북 청주
	학력	청주여고, 이화여대

새 정부 조각 명단 발표 강행

조직개편 협상 결렬...15명 현행 직제 대로

통합민주당 “인사청문회 협조 못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밤 8시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13개 부처 장관과 두 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명단을 직접 발표했다.

이 당선인은 또 이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당선인은 이날 정부개편안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4개 통폐합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부처 장관을 현행 직제대로 임명했으며 두 명의 특임장관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명칭으로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내각 없는 정부 탄생’이 우려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당선인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당초 내정된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대신 서울대 김도연

(55) 재료공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이 당선인은 또 재경부 장관에 강만수(62) 전 재경원 차관, 외교부 장관에 유명환(61) 주일대사, 법무부 장관에 김경한(64) 전 법무 차관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에 이상희(62) 전 합참의장, 행정자치부 장관에 원세훈(57)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문화관광부 장관에 유인춘(56) 중앙대 교수, 농림부 장관 정운천(53) 한국농업CEO연합회장, 산업자원부 장관 이윤호(60) 전경련 상근부회장,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이(61) 이화여대 교수, 환경부 장관 박은경(61) YWCA연합회장, 노동부 장관 이영희(64) 인하대 교수, 건설교통부 장관에 정중환(59)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이 발탁됐다.

아울러 국무위원에 남주훈(55) 경기도 교수와 이춘호(62) 자유총연맹 부총재가 각각 임명됐다.

이 당선인은 이날 인선 발표에 앞서 “저 자신 직접 국회의장, 각 당 대표, 정책의장을 일일이 찾아보고 협조를 당부했으나 국회 논의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다. 다잡워 헛바퀴 돌듯 좀처럼 타결되지 않았다”면서 “이해관계자는 반발하고 공무원들은 일손을 놓고 있으며 새정부 출발을 더 이상 미룰 경우 엄청난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염려된다”고 갑작스런 조각 인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 술은 마땅히 새 부대에 넣어서 시작하는 게 원칙이지만 어쩔 수 없이 현행법에 의해서라도 국무위원을 발표했다”며 “우선 13명은 각 부 장관으로, 두 명은 부처를 정하지 않고 국무위원으로 일하게 된다. 비위된 6개 부처 책임자들은 국회 논의 결과를 봐가면서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처럼 이 당선인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각 인선 발표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도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에 대해 “청문회 요청을 정식으로 하면 논의를 모으겠지만, 협상 도중에 조각 명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협상을 파괴했는데, 우리가 불법, 탈법과 오만의 들러리를 서게 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다”고 인사청문회에 협조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협상관을 이 당선인이 했으며 이는 정치적인 대결로 가지는 것으로 매우 비생산적”이라며 “받을 수 없는 것을 던져 놓고 함복하라고 토끼몰이를 하고 있다. 위험한 행진을 계속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협상의 문을 닫을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명박 정부엔 광주·전남 없나

추진단 기구 축소 사업 추진 불투명

② 변질된 문화수도

새로 출범할 이명박 정부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국책사업인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위상 추락은 물론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 심의·의결기구인 대통령 소속 조성위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문광부장관에 맡기는 등 사업 축소와 위상의 변질을 의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문화수도 사업의 중추 기관인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기구 축소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현재 8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추진단의 경우 직원 절반 가량이 계약직 신분으로, 새정부의

조직슬림화 정책에 따라 문광부 내 일개 국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인수위의 계약직 공무원의 재계약 불허 방침에 따라 추진단인 1~2년 내에 직원 40여 명만을 보유한 ‘미나’국(局)으로 전략하는 것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현재 문광부는 조직 개편안의 국회통과 시점에 맞춰 기존 2명 이던 국장급 간부를 1명으로 줄이는 ‘감량’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추진단도 올 상반기 전당 조성, 운영 부문 인력 30여명을 충원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추가 인력보강이 이뤄질 지 미지수라는 게 내부의 증언이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4월로 다가온 아시아 문화전당 기공식은 물론 각종 현안사업들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지원 광주·전남 문화연대 사무국장은 “새정부는 차별 없는 지역 발전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영기기자 zenfoot@

깍데기만 남은 ‘서남권 특별법’

우선 예산편성·지방채 발행 특례 등 주요 조항 삭제...‘누더기 법안’ 전략

신안·무안·목포 등 서남권 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법안’(서남권 특별법)이 지난해 말 국회 건설교통위 심의과정에서 ‘서남권’이라는 지역명만 빠진 것이 아니라, 우선 예산편성, 지방채 발행 특례 등 주요 조항이 삭제되는 등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서남권 특별법’안은 당초 각종 공원조성과 위락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해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던 조항이 환경부의 반대로 삭제됐다.

또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요건도 당초 2분의 1 이상만 매입하면 되도록 규정했으나, 심의과정에서 3분의 2를 매입해야 하는 쪽으로 강화

됐다. 지방재정 악화를 이유로 특별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고,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 설립을 쉽게 하기 위해 추진한 금융기관의 출자한도 완화와 출자총액 제한 특례도 관련 부처의 반대로 이 법안에서 삭제됐다.

더욱이 국회는 19일 법사위에서 서남권 특별법을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발의한 낙후지역 개발촉진 특별법과 병합심리할 예정이어서, 이 과정에서 ‘누더기 특별법’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어떻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치권에 대한 설득을 계속하고 있으나 병합심의과정에서 아무런 특별 효력이 없는 ‘누더기 특별법’을 바꾸지 않을까 우려돼 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고등법원 판사를 마지막으로 정년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사랑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경력 및 경력

- 광주중신고(18회) 졸업
- 서울대 법과대학(88학번) 졸업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연수원 27기)
- 군법무관(제12사단, 국방부령할관)
- 광주지방법원 판사(민사, 형사, 합의부)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민사1단독, 신청, 경미)
- 광주지방법원(민사1단독)
- 광주고등법원(민사, 형사, 가사)

변호사 이관진 올림

- 개업주소: 광주시 동구 지산동 342-13 심신빌딩 203호 (법원정문앞)
- 대표전화: (062)228-2800 팩스: (062)228-2802

